

초유의 대표 징계... 혼돈의 국민의힘

차기 지도체제 놓고 분화 조짐
친윤 '권성동 직무대행' 선언
이준석 반격 카드 모색하며 잠행
의원들 선수별 총회 수습 나서



‘당원권 정치 6개월’이라는 초유의 윤리위 징계 결정을 받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SNS에 온라인 당원 가입 독려 글을 올리며 여론 지원을 호소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공동취재단>

‘성상남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치 6개월’ 철폐를 맞으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차기 지도체제를 놓고 친윤(친윤석열)그룹 내 본격적인 분화 조짐이 일고,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도 ‘초유의 여당 대표 징계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 ‘국민의힘 당권 전쟁’ 신호탄=국민의힘 전당대회 시기와 차기 대표 임기 문제 등에 대해 친윤 그룹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는 곧 2024년 총선 공천권을 누가 쥐게 되는가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집권여당 내 권력투쟁의 서막이 오른 모양새다.

친윤그룹 말형으로 통하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 징계 후 곧바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선언하고 나섰다. 비상시 당 혼란상을 수습하면서 자신이 사실상 ‘원톱’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 해석이 나왔다.

당 일각에선 전당대회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 권 원내대표의 정치적 시간표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내년 4월까지 임기인 권 원내대표로서 당장 직을 던지고 당권 도전에 뛰어들 수 없는 만큼, 전당대회 전까지 비대위나 직무대행 체제로 시간을 벌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권 원내대표 외에 일부 친윤그룹 의원들의 기류는 온도차가 있다.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이 대표의 잔여임기를 수행할 당 대표 선출에 무게를 실는 분위기다. 내년 6월 이 대표의 임기가 종료된 뒤 정기 전당대회를 치르자 전, 이른바 ‘징검다리 전당대회’를 통해 위기를 성공적으로 관리할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 이준석의 반격 카드는? 이준석 대표는 반격 카드를 모색하며 장고에 들어갔다. 애초 지난 8일 새벽 윤리위 징계 직후엔 이 대표가 인터뷰 등을 통해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이들이 지난 10일까지도 이 대표는 ‘잠행 모

드’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정계 당일부터 매일 변호사 등 참모진과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펼쳐놓고, 당헌·당규 해석과 가처분 신청 여부 등을 염두에 둔 법리 검토 등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1일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권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체제를 선언하고 당 수습 드라이브를 건 상황에서 무리한 충돌을 피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 대표가 쓸 수 있는 선택지 가운데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은 윤리위 재심 청구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이지만 아마저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성상남 사건 관련 진행 중인 경찰조사도 이 대표의 운명을 가를 변수로 될 전망이다. 경찰조사에서 의혹을 벗어난다면 단번에 모든 상황을 뒤집고 기사회생할 반격 카드가 된다. 반대로 혐의가 입증되면 정치적 재기가 적어도 당분간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 국민의힘 혼란 수습 돌입=후폭풍에 휩싸인 국

민회의힘이 본격적인 수습 절차에 돌입했다. 이 대표 징계 이후의 지도부 구성 논의가 어떤 형태로 이뤄지느냐에 따라 여권 내부의 혼란상 추이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여 정치권 전체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11일 초선·재선·중진 등 릴레이 선수별 모임에 이어 오후에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한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일단 사상 초유의 당 대표 징계 사태에 따른 직무 정지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당헌·당규의 해석에서부터 이견이 빚어지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가 됐다.

이 대표 측은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당규를 들어 아직 당 대표 직무가 정지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 권한은 당 대표에 있다는 점도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리위 결정 즉시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고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11일 최고위원회의를 직접 주재할 방침이다. 의중에서 권 원내대표의 직무 대행 체제가 사실상 추인 수순을 밟을지 주목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아베 피격 사망, 충격에 빠진 일본

해상자위대 출신 40대 체포
한덕수 총리 등 조문단 파견키로



구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가미는 “총은 수개월 전 만들었고, 부품과 화약류는 인터넷에서 구입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보도했다.

아베 전 총리는 두 차례에 걸쳐 총 8년 9개월 총리로 재임한 일본의 역대 최장수 총리다. 집권 자민당 내 대립적 강경파 인사로,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를 이끌었다.

아베 신조(67·사진) 전 일본 총리가 선거 유세 도중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일본 최장기 총리를 지냈고 보수·우익 세력의 구심점이던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소식에 일본 열도는 충격에 빠졌다. 우리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으로 구성된 조문 사절단이 일본에 파견될 전망이며, 세계 각국의 조전과 조의 표명이 잇따랐다.

<관련기사 2면>

아베 전 총리는 지난 8일 오전 11시 30분께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를 앞둔 가두 유세 도중 용의자가 수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쏜 총에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후 5시 3분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아베 전 총리를 총기로 저격한 용의자 아베가미 데쓰야(41)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다.

전직 해상자위대 출신인 그는 어머니가 빠진 종교에 아베 전 총리가 영상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됐다.

아베가미가 범행에 사용한 사제 총은 길이 40cm·높이 20cm로 금속관을 2개 묶어 나무와 테이프 고정형 형태로, 한 번 쏘면 6개의 총알을 발사하는

2006년 52세에 전후 최연소 총리로 취임했다가 1년 만에 조기 퇴진했지만 2012년 재집권에 성공해 ‘아베 1강(強)’이라고 불리는 독주 체제를 유지하다 2020년 9월 지방인 궤양성 대장염 악화로 사임했다.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을 필생의 과업으로 삼았으나 여론 악화와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물러났다.

경제 측면에서는 잃어버린 20년을 회복하겠다면서 막대한 돈을 풀기를 특징으로 하는 ‘아베노믹스’를 앞세웠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퇴임 후에도 그는 후임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 기사다 후미오 현 총리를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광주, 공립유치원생·초등 돌봄교실 학생 전국 최초 여름방학 무상급식 실시한다

시교육청, 1만117명 대상

광주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름방학 중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1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150개교) 돌봄교실 참여학생(1,2학년), 공립유치원(병설 114원·단설 12원) 방과 후 유치원생 등 1만 117명에 대해 방학중 무상급식을 한다.

여름방학 중 무상급식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표방한 이정은 교육감의 ‘2호 공약’이다.

무상급식은 직영·위탁 급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급식 기간은 최장 25일까지이다. 급식 방식은 학생 50명 이하 학교는 위탁 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50명 초과 학교는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직영 또는 위탁 급식 등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조리원 등 조리 종사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도시락이나 단체 음식을 학교로 배달해 식사하는 위탁방식으로 이뤄진다. 위탁 급식 단가는 매기

7500원으로 시 교육청이 이비용을 지원한다.

시 교육청은 직영과 위탁 등 여름방학 무상급식을 위해 총 23억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초등학교 돌봄교실 참여 학생 등은 수석자(학부모) 부담 원칙하에 집에서 도시락을 싸거나 외부업체 도시락을 구매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이번 정책이 학교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꾸준한 모니터링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오토바이 굉음에 잠 못드는 시민들 분통 ▶6면
- 안세영, 천적 천위페이 꺾고 우승 ▶18면
- 한국의 서원 - 안동 도산서원 ▶22면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바이탈뷰티

마시는 프리미엄 콜라겐 슈퍼콜라겐 골드

구매문의 :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080-023-5454